

도로 위 안전덮개 ‘복공판’ 국가표준(KS) 마련

- 미끄럼 저항 성능 등 시험방법 표준 개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건설현장에서 굴착된 노면을 복개하고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복공판의 성능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9월 30일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KS F 8091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 '26.9.30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그동안 복공판은 차량 통행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가설기자재임에도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시험절차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차량 주행 시 미끄럼 저항, 차량 하중에 따른 복공판 처짐, 반복 하중에 따른 용접부 균열 등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 업계 및 시험·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미끄럼 저항 성능 시험, 정하중 시험, 용접 이음부 피로 시험을 KS 표준으로 마련하였다. 미끄럼 저항 성능 시험은 복공판 표면 요철을 고려한 연속 측정 방식을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정하중 시험은 시험편 재하 방향, 변위계 위치 등 시험조건을 구체화하고, 용접 이음부 피로 시험은 반복 재하 주파수를 3Hz 이하로 규정하였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복공판은 공사기간 동안 일반 차량이 직접 통행하는 시설인 만큼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험·평가 방법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책임자	과 장	김용득 (043-870-5370)
		담당자	연구사	박종훈 (043-870-5374)